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4월 2일(주일) 제1142호

‘십자가, 하나님의 고통’

고난주간 심야예배 4월 10~14일 오후 9시

한 끼 이상 금식, 십자가 목걸이 걸기, 침묵기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십자가, 하나님의 고통’을 주제로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린다. 다음 주 월요일(10일)부터 금요일(14일)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오후 9시에 드린다. CGNTV는 고난주간 심야예배 실황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

고난주간 심야예배는 성서교독, 침묵기도, 말씀선포, 합심기도, 개인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메시지는 10일(월)과 11일(화) 이주연 목사,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전한다. 14일 성금요일 예배에서는 가

상철언 낭독, 촛불 세리모니, 성찬식 등이 거행된다.

찬양사역팀은 다채로운 특순을 준비했다.

월요일 주찬양, 화요일 주향한, 수요일 위십과이어, 목요일 대학청년부, 금요일 주사랑 찬양사역팀이 특순을 한다.

금식헌금 난민구제사역에 사용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리는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행동지침도 정해졌다. 이 기간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오후 6시 이후 모임을 삼가고 고난주간 심야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고 그 비용을 헌금한다. 헌금은 난민구제사역에 사용된다.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릴 때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예배 시간 전후에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로 했다. 교회 로비에는 ‘회개의 십자가 나무’가 설치된다. 성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적은 종이를 회개의 십자가 나무에 못 박고 회개하자는 의미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주간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부활을 묵상하고, 회개하는 절기로 기독교의 핵심 절기 중 하나다. 온누리교회는 2012년부터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리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사진 / 김영선 기자

오늘 CGNTV 개국 12주년 행사

기념행사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CGNTV가 오늘(2일)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를 주제로 개국 12주년 감사행사를 개최한다.

다양한 트릭아트 이미지를 배경으로 입체감 있는 사진촬영, 어플리케이션 ‘CGN AR’과 함께하는 캘리그래피 만들기, 4월 26일 개봉을 앞둔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의 주인공 이름인 서서평으로 삼행시 짓기, 떡과 차 나눔 등의 행

사가 실시된다. CGNTV 안내데스크에서는 후원과 시청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오늘 오전 10시30분에는 CGNTV 개국 12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사랑하기 때문에’가 방영된다. 15차례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필리핀 오지를 누비며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누가 선교사의 가슴시린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관련기사 6면>.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 참가자 모집

4월 26~28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원이다. 4월 18일까지 사전등록하거나 단체(10인 이상)로 접수하면 할인해 준다. 탁아실은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 유아를 동반한 경우 자모실을 이용하면 된다. 회복축제 ‘은혜의 만찬’은 오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진행된다.

국제YWAM 주강사이자 회복사역 전문가인 에드 코리 목사와 결혼과 가족상담 심리치료사 박성심 사모가 강의한다. 이번 회복축제는 일반 강의, 선택강의, 저녁집회로 꾸며진다. 일반강의에서는 ‘회복으로의 초대’, ‘회복의 기초가 되는 은혜’, ‘은혜와 두려움(동반의존 극복하기)’, ‘기쁨과 평강으로 향하는 문’, ‘평

강을 회복하는 길’, ‘상처 있는 기억으로부터 기쁨과 평화로 회복되는 길’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선택강의에서는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을 소개한다. 저녁집회는 ‘기쁨을 증가시키는 길’, ‘뇌를 변화시키는 은혜’, ‘기쁨과 평강을 확장하는 길’을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 당일에는 교회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것이 좋다. 셔틀도 운영된다.

문의: 02-3215-3532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교회와 선교 위해 살다!

삶으로 선교하는 김숙경 성도와 박일화 집사



김숙경 성도(가운데)는 선교지에서 찬양단을 만드는 사역에도 헌신하고 있다.

선교에 헌신한 이가 어디 한둘이겠냐만 삶으로 선교하는 성도들은 귀하다. 삶으로 선교하는 성도들은 귀하다. 우리는 그들을 보석보다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 여기 그 귀한 성도가 둘이나 있다. 선교지에 교회를 헌당하고 있는 김숙경 성도와 자비량 선교사 박일화 집사가 그 주인공이다.

김숙경 성도는 선교지에 교회 100개를 헌당하는 것이 꿈이다. 2004년부터 인도, 스리랑카, 네팔에 교회 7개를 헌당했다. 박일화 집사는 방글라데시에서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다. 박 집사는 “성도라면 선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한다. 말 그대로 교회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

/ 정현주, 김영선 기자

김숙경 성도가 처음 헌당한 교회는 인도 북동부에 있는 ‘사이콧교회’다. 2004년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부터 선교지에 교회 헌당을 시작했다. 그런데 왜 미국이 아니라 인도였을까. 딸이 유학을 간 것과 교회 헌당이 무슨 연관이 있었을까.

그녀는 딸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생각했다.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그녀도 최선을 다해 돌봤다. 다른 사람 손에 맡겨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전심을 다했다. 그렇게 키운 딸을 유학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제 딸을 맡으시고, 저는 주님의 일을 할게요.”

딸을 하나님께 맡긴 후에는 하나님의 일이 김숙경 성도의 사업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예배시간에 선교사들로부터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너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헌당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때마침 시어머니가 적금을 넣어 모은 천만 원을 줬다. 그 돈을 인도에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크게 지어서 돈이 모자라다는 연락이 왔다. 그동안 딸 아이 뒷바라지를 하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었다. 적금을 꺼서 천만 원을 보냈다. 그런데 또 다시 연락이 왔다. 인도 물가가 올라서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교회를 크게 짓느라 돈이 부족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어요. 만약 우리 딸 일이 었다면 빌려서라도 돈을 마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을 담보로 천만 원을 대출

받아 선교지에 보냈어요. 사이콧교회 헌당식에 참석해서 알게 되었는데 3년 전부터 교회 신축을 위해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영국교회 성도들이 헌당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헌당하게 하신 것을 알고 정말 감사했어요.”

인도 델리 부근 교회를 증축하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두 번째 교회를 헌당했다. 선교지에 세 번째 교회를 헌당하기까지 제법 많은 시간이 걸렸다. 세 번째 교회는 2015년 네팔에 헌당한 ‘언언더교회’다. 네 번째 교회 헌당은 그녀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투병 중인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남편을 완벽하게 고쳐주셔서 천국으로 데려 가주셨어요. 20년 넘게 하나님께 남편이 바울처럼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남편을 데려가셨으니 하나님께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교회를 짓고 그 교회가 바울처럼 쓰임 받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남편이 천국에 간 뒤에 네팔과 스리랑카에 교회 두 개씩 더 헌당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부조금을 모아 인도네시아 신학교에 강의 동도 헌당하기로 했다.

“선교지에 교회 100개를 헌당하겠다는 비전은 2004년 새벽기도회에서 받았어요. 선교지에 교회 100개를 헌당하겠다고 서원했지만 실감은 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천국

하나게 하소서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 (스가랴 2:11)

온누리 선교사들이 열방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자비량 선교사로 사역하는 박일화 집사.

갈 때 저에게 남은 물질을 교회 헌당을 위해 드리고, 제 딸이 대를 이어서 이 일을 계속하면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그 비전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믿어요.”

그녀는 선교지에 교회를 헌당하는 일이 특별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동참해 줄 것을 권유했다.

“순, 공동체, 사역팀 등 작은 모임에서 조금씩 헌금해서 선교지에 교회를 헌당하는 비전을 품으면 좋겠어요.”

표가 나지 않아도, 힘이 들더라도

박일화 집사는 자비량 선교사다. 성도라면 선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할 정도로 선교에 헌신했다. 그는 1988년 온누리교회에 처음 왔다. 그보다 1년 먼저 교회에 다닌 아내가 전도했다. 당시 그는 잘 나가는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 사업을 시작했다.

“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어요.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던 시절이었어요.”

동업자와 함께 무역회사를 설립했다. 큰 꿈과 포부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실패하지 않았다. 일본 쪽으로 수출하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설상가상 동업자와 의견이 달라 창업한 지 3개월 만에 갈라서야 했다. 사업적으로 방황하고 있던 시절 하나님을 만났다.

“사업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당시에는 제가 힘들어서 교회에 나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박 집사는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다. 수요일 배, 아버지학교, 와이미션 등 다양한 예배와 강의를 찾아 다녔다. 순장, 다락방장, 주일학교 교사 등 할 수 있는 봉사도 다 했다.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거듭났다. 2006년 4월, 일만사역자로 파송 받고 자비량 선교사가 되었다. 방글라데시에 공장을 세웠는데 그곳에서 교회와 학교를 운영했다. 한국인 선교사와 현지 교회

를 돕는 일도 병행했다.

그는 자비량 선교사로 파송 받으면서 4가지 비전을 세웠다. 선교사들을 돕고, 현지 교회와 협력하고, 초등학교를 짓고, 금홀(구제)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이 4가지 비전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인 선교사들을 만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있다. 선교사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하여 CGNTV 안테나를 무상으로 달아주고 있다. 그가 달아준 CGNTV 안테나가 50~60개나 된다. 한국에 왔다가 방글라데시로 들어갈 때면 짐가방을 가득 채워간다. 모두 선교사들에게 전해 줄 한국 식재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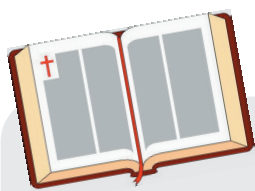
“방글라데시에서는 한국 식재료를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한 번씩 한국 식재료를 가져가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 현지 한인 교회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나눔을 하는 걸 보고 <생명의 삶>을 소개했다. 아버지학교 세미나를 열어 주기도 했다. 운영하고 있는 공장 주변에 학교를 세웠다. 방글라데시어, 영어, 수학,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반이 세 개 밖에 없는 작은 학교지만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주중에는 학교, 주일에는 교회로 활용하고 있다.

“정식으로 인가를 받으면서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어요. 코란도 받는데 저희는 미션스쿨이라 이슬람 교리는 가르치지 않아요. 대신 성경을 가르쳐요. 주민, 직원, 학생들이 모두 무슬림이지만 우리 학교를 무척 좋아합니다. 가난해서 학교에 못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학교에서는 책, 간식, 옷, 쌀을 무료로 배부니까 기독교 학교라고 박해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힘들 때가 왜 없었을까.

“제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의심이 생길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선교사님들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기도와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때 알았어요. 표가 나지 않고 힘이 들더라도 절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요.”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경의 진리성을 부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켜야 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맞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이 민족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겠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에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해 보라”(신 7:16~18).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까지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들의 왕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는 것이고 너희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 버릴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 대항해 들고 일어날 수 없으며 너희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24절).

하늘 아래에서 이름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영예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어 쫓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똑같은 인간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비윤리적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명령을 보면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명령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요, 자비로운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명령의 근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멸망에 대한 명령

“네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창 16:16).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의 자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계획을 아

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며, 그 까닭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4대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동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이동의 목적 중 하나가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사랑하시고, 복주시며,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심판의 징조를 말씀하셨지만 그로부터 400여 년을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이르기까지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사랑과 자비로 공의를 넘어뜨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은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동성애와 강간 등 성적인 타락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듯이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뤄지는 과정도 공의롭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어 쫓고, 멸망시키고, 그들의 이름까지 제거해 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시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들이 악을 택하고 악에 속하기를 고집했을 때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도 병이 일부분 있습니다. 용납될 수 있는 정도의 병이 있고, 용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칼을 대어야 합니다. 칼을 대서 그 세포를 도려내지 않으면 온 몸이 죽게 되기에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서운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영적인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악하기 때문에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은과 금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거민들의 멸망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상숭배와 가증스러운 악들을 따르지 않도록 그것들을 혐오하고 철저히 미워하라는 명령도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 형상을 불에 태우며 그것 위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 말며 가져가지도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맞을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집에 가증스러운 것을 들이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것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미워하라”(25~26절).

하나님이 가나안 거민들이 섬겼던 우상, 그들이 탐내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들을 철저히 미워하라고 명령 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가나안 거민들과 같이 행한다면 그들 또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속했던 악을 이스라엘 민족들도 동일하게 행한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미워하고 혐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정과 혼약을 맺지 말고,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그들이 세웠던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5절을 보면 그들의 우상을 불에 태우며 그것 위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릴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할 수 있는 위험은 가나안 거민들이 섬겼던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에 입혀진 은과 금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이 섬겼던 우상을 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상에 입혀진 은과 금을 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것은 존재하지도 않은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에 입혀놓은 은과 금입니다.

여러분, 헛된 우상일수록 화려하게 만듭니다. 헛된 우상일수록 은과 금으로 입힙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가져다준다고 약속한 은과 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대한 탐심으로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열매 이면에 탐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자유에 대한 탐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진짜 자유인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일수록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특별히 헛된 종교를 보면 모두 은과 금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십자가를 은과 금으로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다이아몬드를 다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십

자가는 소박합니다. 나무십자가면 됩니다. 십자가가 상징으로 보여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화려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상에게 은과 금을 입히면 사람들은 그 우상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신을 믿으면 나에게 은과 금을 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과 금으로 주목하게 만드는 신앙이 아닙니다. 못 박힌 십자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은과 금을 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너머에 무엇인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에 대한 탐심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탐심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과 금을 의지하는 인생이 탐심의 본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탐심을 허용하게 되면 밋과 올무가 되어 너희들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철저히 분리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

하나님은 백성들이 밋에 걸려 멸망당하지 않도록 싸우십니다. 성경 전체 주제 중 하나가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싸우는 용사입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와는 용사시나...” 그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쟁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으로 전쟁을 했지만 우리에게만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전쟁이야기는 구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마 10:34). 예수님의 말씀에도 전쟁용어들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 번연이 쓴 <거룩한 전쟁>이라는 풍유집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썼습니다.

사다이라는 왕이 맨소울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가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사다이 왕의 신하였던 반역을 한 디아볼루스라는 반역자가 맨소울을 점령하려고 침투합니다. 자신이 맨소울의 거민인 것처럼 위장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맨소울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13면에 계속>

CGNTV 개국 12주년 특집 대담

CGNTV의 새 비전

후원자 1명이, 후원자 1명 소개하면 얼마든지 가능

이용경 장로
(CGNTV 대표)정상건 장로
(CGNTV 운영위원장)

개국 12주년을 맞이한 CGNTV의 성장이 눈부십니다.

이: “2005년 개국한 CGNTV는 전 세계 170여 개국에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87개국에 안테나 10,843대를 설치해서 오지의 선교 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홍콩, 아랍에미리트에 지사와 제작센터를 세워 현지 상황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매년 6,000여 편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CGNTV는 예배, 말씀뿐만 아니라 선교, 통일한국, 사회선교, 차세대 분야의 콘텐츠를 제작해 시청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위성방송을 비롯해 케이블TV, IPTV, 인터넷, 모바일 등의 매체를 통해서도 CGN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IPTV 기독교 채널 중에서 CGNTV가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모바일용 콘텐츠 ‘KNOCK’은 2016년 1월 SNS 전용 채널 개설 이후 누적 조회수 800만회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웹드라마 ‘교회오빠의 연애QT’는 지난해 8월 K웹페스트에서 ‘베스트 브랜드 시리즈’ 상을 수상했고, ‘미니휴먼다큐 시리즈’는 12월 한국기독교언론대상 기독교문화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눈부신 성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CGNTV는 성장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난 12년 동안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한국 교회와 나누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GNTV 미디어 아카데미를 통해 미디어 선교 노하우와 방송기술을 공유하고 있고, 섬기는 일손이 부족한 교향회를 찾아가 섬기고 있습니다. 4월 26일에는 CGNTV가 제작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CGNTV는 한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 영화를 상영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방송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방송국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입니다. 그런데 CGNTV는 개국부터 지금까지 광고를 하지 않고 순수복음만 전파하겠다는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CGNTV에는 지출예산은 있어도 수입예산은 없습니다. 사실 저도 방송국이 상업 광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드머니를 후원해주시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방송을 시작

하게 하였고, 정기후원, 드림통 후원, ARS 후원, 운영위원회, 중보기도팀, 미디어 선교에 헌신한 CGNTV 직원들을 통해 단 한편의 광고 없이도 순수복음을 방송할 수 있도록 역사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CGNTV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저 놀랍고 위대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CGNTV는 지난 12년 동안 돈이 없어서 방송을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년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후원자들 덕분에 사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기후원자 5만 명 달성’이라는 새 비전을 선포하게 된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CGNTV에게 후원자의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정: “CGNTV에게 후원자들은 영원한 동반자이자 동역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75명 이상의 사람들과 협동하고, 각 사람의 달란트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CGNTV는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기도,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정기후원을 시작한 이후 매년 2,000~3,000명씩 후원자들이 증가했습니다. 개국 12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2만 8천여 명의 후원자들이 CGNTV와 동역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5만 명 달성이라는 새 비전이 궁금합니다.

정: “CGNTV가 정기후원자 5만 명 달성이라는 새 비전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한 명이 라도 더 참여하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방송 기술과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 비전이 필요했습니다. 요즘 차세대를 또 하나의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복음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미디어만큼 좋은 도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믿지 않는 차세대들도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SNS를 활용한 맞춤형 영상, 새로운 장르 개발 등 다방면으로 기술과 콘텐츠가 필요합니

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작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CGNTV는 공중파 대비 1/10의 제작비용으로 방송을 만들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이 있는 방송들과 수준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GNTV 후원자가 늘어나면 재정이 안정되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믿음의 유산을 전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함축한 표현이 바로 ‘CGNTV 후원자 5만 명 달성’이라는 새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후원자 5만 명을 어떻게 달성할 계획입니까?

김: “가장 먼저 CGNTV를 후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되는 거룩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리고 공유해야 합니다. 저는 선교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이 CGNTV를 후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기후원을 시작했습니다. CGNTV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제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했습니다. CGNTV가 선교사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것만큼 중요한 다른 사명도 많습니다. 세계각지에 CGNTV 지사와 제작센터를 세워 현지어로 제작된 기독교 콘텐츠를 공급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청자들이 풍성한 말씀, 예배, 컨퍼런스 등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려면 CGNTV 후원자 5만 명 달성이라는 꿈을 이뤄야 합니다.

CGNTV 후원자 5만 명을 달성하려면 시청자가 더 늘어나야 합니다. CGNTV에 후원하려면 방송을 보고 은혜와 감동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시청자들이 CGNTV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해 PC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CGNTV를 본 시청자가 842만 명이나 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시청하는 국내외 가시청 가구까지 포함한다면 약 3천만 명이 CGN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CGNTV가 제작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극장에서 개봉됩니다. 이 영화를 지역 교회를 순회하면서 상영도 할 것입니다. 이보다 한국 교회에 CGNTV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CGNTV 후원자가 후원자를 추천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후원자 배가 운동’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지금 2만 8천명의 후원자가

CGNTV가 ‘후원자 5만 명 달성’이라는 새 비전을 선포했다. 기존의 2만 8천명 후원자가 신규 후원자 1명만 소개하면 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방송 기술과 콘텐츠에 대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비전이다. CGNTV 후원자가 5만 명이 되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 재정이 안정되는 만큼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급변하는 방송 기술과 콘텐츠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Good News’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바탕으로 방송문화를 선도하게 되며, 차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을 쓸 수 있다. 이 아름다운 비전을 대하여 CGNTV 대표 이용경 장로(이하 이), 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이하 정), 운영위원 김희준 집사(이하 김), 운영위원 이은경 집사(이하 은)가 명쾌하게 설명해줬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후원자 5만 명 달성’

달성하면 자체 제작 늘고, ‘Good News’로 방송문화 선도

CGN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CGNTV 후원자 한 명이 후원자 한 명만 추천해도 후원자 5만 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목표가 됩니다. CGNTV 일반인 홍보대사를 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후원자들과의 교류의 장을 넓히고, CGNTV 직원들의 출석 교회와 중보기도모임 드림온맘, 운영위원회에서 후원자를 계속 찾고 추천한다면 후원자 5만 명 달성이라는 새 비전이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CGNTV 운영위원회가 선봉에 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은: “CGNTV 운영위원회는 ‘후원자 한 명이 열 명의 후원자 모으기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10 운동’이라고 이름도 지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만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CGNTV의 비전과 시대적 역할을 공유하고, 소액후원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소액후원이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소액후원자들의 힘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소액후원은 재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CGNTV를 후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은 금액이 모이면 큰 금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을 후원하면 마음도 함께 따라옵니다. CGNTV에 소액후원을 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성운영위원회에서는 CGNTV를 널리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전달하기 편한 짧은 영상을 만들자, 편안하게 볼 수 있지만 깊은 감동을 남길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자, 소그룹을 만들어 ‘1:10 운동’을 하자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원자 5만 명 달성이라는 비전을 처음 들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헌신이 5천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재현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기존 후원자들도 ‘1:10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CGNTV 후원자 5만 명을 훌쩍 뛰어 넘어 10만 명까지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CGNTV 운영위원들이 늘 앞장서겠습니다.”

CGNTV 직원들도 동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CGNTV 직원들은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한 마중물입니다. 2007년부터 CGNTV 정기후원을 시작했는데 그보다 한 해 전인 2006년부터 CGNTV 직원 12명이 자발적으로 정기후원을 시작했고, 그 다음 해에는 5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지금은 140여 명의 직원들이 정기후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CGNTV 직원들이 후원자 2만 8천명의 초석입니다. CGNTV 직원들은 ‘5만 후원자, 우리가 먼저 시작합니다’라는 사내 캠페인을 통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방송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후원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후원 확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CGNTV 후원자 5만 명이 달성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정: “크게 세 가지가 변화됩니다. 첫째, CGNTV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CGNTV가 총 5,716편의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24시간 방송을 송출해야 하는 여건상 본방률이 45%에 그쳤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날마다 새롭고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CGNTV 후원자 5만 명 시대를 맞이하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CGNTV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늘려 날마다 신선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차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대폭 늘어납니다. CGNTV가 제작한 5,716편의 프로그램 중에서 말씀, 예배, 세미나 등 영성 콘텐츠 비율이 80%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사들의 영적 갈증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다음 세대와 문화사역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아쉽습니다.

CGNTV 후원자 5만 명 시대가 되면 해외 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국내 환경에 맞춘 차세대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미래의 플랫폼 개발 및 신기술과 장비도입 통해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걸맞는 방송장비 마련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방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청자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방송이라고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앞서가는 방송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CGNTV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Good News’라는 새로운 콘텐츠로 방송문화를 선도해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고(故) 하용조 목사님은 열방을 품고, 선교사를 위하고, 선교지를 살리는 방송을 꿈꾸셨습니다. 헌신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 방송이 바로 CGNTV입니다. 누군가는 1년도 못 가서 방송이 중단될 것이라고 했지만 벌써 12년 동안 순수 선교교육 방송의 정체성을 지키며 지경을 넓혀 왔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복음 메시지를 상업화하지 않는 CGNTV가 앞으로도 순수함을 지키며 세상에 거룩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와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CGNTV 후원자로 참여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소중한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청자들과 후원자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CGNTV는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일으키는 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등불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CGNTV 후원은 홈페이지 (www.cgntv.net)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796-2243



이은경 집사
(CGNTV 운영위원)



김희준 집사
(CGNTV 운영위원)



“사랑하기 때문에”

박누가 선교사,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 오늘도 떠난다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진료하는 박누가 선교사.

이 시대 작은예수가 바로 여기 있다. 시한부선고를 받고도 사명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목숨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목숨 걸고 산 넘고, 강을 건너고 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끔찍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말이다. 이 기적 같은 사연의 주인공은 필리핀에서 의료선교를 하고 있는 박누가 선교사다. KBS 인간극장에 출연해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동을 받는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혀를 내두른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사랑하기 때문에.

/ 조혜민 기자 hm030@onnuri.org

박누가 선교사는 위암 말기 환자다. 그 끔찍한 항암치료를 받느라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 와중에도 청진기를 내려놓지 못한다. 아니 내려놓지 않는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항암치료를 의료선교를 할 수 없는 것보다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도움 받은 것 없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그의 행동을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도 그의 발걸음은 필리핀 오지를 향하고 있다. 배에 복수가 차고,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중환자지만 그의 발걸음은 쉬지 않는다.

박누가 선교사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일까. 필리핀 마닐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누가선교병원’을 떠올린다. 누가선교병원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아픈 사람들이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문을 닫지 않는다. 일종의 응급실이다. 마닐라뿐만 아니라 오지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몸이 아프면 박누가 선교사를 떠올린다. 그가 한 순간도 의료선교를 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박누가 선교사는 8년 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누가선교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누가선교병원은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빈민들에게는 진료비를 받지 않는다. 박누가 선교사는 움직이는 병원도 운영하고 있다. 직접 버스를 몰고 필리핀의 오지를 찾아다니며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오지 의료봉사만 해도 대단한

데 알다시피 그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중환자다.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1992년도에 췌장암이 발병했고, 2004년에는 위암 4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다. 기적처럼 말기암을 이겨냈는데 지난해 이맘때쯤 재발했다. 1년 정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시한부 선고를 또 받았다. 이미 암이 간과 임파선까지 전이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손과 발의 감각도 잃어가고 있다.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말초신경이 망가진 것이다. 현재 그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4개월 남짓이다.

인간 박누가와 선교사 박누가

박씨 집안에서 의사가 나왔다고 난리가 났었다. 집안의 자랑이자 희망이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던 그는 경북 성주 출신이다. 4남4녀의 일곱째로 태어났다. 어려운 형편에도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은 누나들의 헌신적인 지원 덕분이다. ‘개천에서 용 난’ 그를 누나들이 자기 일처럼 도왔다. 누나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렇게 어엿한 외과의사가 됐다. 의사가 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자라고 있었다. 의술을 좋은 일에 쓰기로 마음먹은 것.

재직하던 병원 사람들과 10년 넘게 의료선교를 다녔다. 필리핀으로 의료선교를 갔다가 그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다. 분명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도 의술이 부족하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허무하게 목숨이 사그라지는 사람들을 봤다. 그 광경을 보고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었다.

1989년, 신혼집을 팔았다.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무작정 필리핀에 왔다. 화장실도 없는 버스에서 생활하면서 의료선교를 시작했다. 얼마나 힘들고 고됐는지 모른다. 췌장암까지 걸렸다. 어머니, 큰누나, 큰형이 암과 간경화로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마저 암에 걸렸다. 참혹한 소식을 전해들은 누나들이 망연자실 했다. 동생을 살려야 한다며 울부짖기를 수차례나 했다. 아내도 마한가지였다. 그런데 남편의 고집을 아무도 꺾지 못했다. 박누가 선교사는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들을 두고 갈 수 없다”며 혼자 필리핀에 남았다.

단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다

누가선교병원은 후원으로 운영된다. 교민들이 내는 약간의 치료비도 보탬이 된다. 박누가 선교사는 병원에서 먹고 잔다. 그를 위한 공간이라곤 작은 방 하나가 전부다.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계속 아위고 있다. 7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항암치료 받고, 의료선교를 이어가기를 반복하고 있다. 차에 타는 것조차 버거운 몸으로 비행기를 타고 있다. 이미 암세포가 위와 간, 임파선까지 전이된 상태다. 수술로도 없애지 못한 암세포가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희망으로 시작한 항암치료도 그의 병세를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한다.

한번은 오지의 학교로 의료선교를 갔다. 2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한 줄로 서서 진료를 받았다. 진료를 하다 너무 고됐던지 잠시 쉬겠다고 했다. 환자들 앞에서 관장은 척 참고 있었지만 관찮지 않았다.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였다.

간신히 차에 들어가 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남은 아이들을 진료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십시오.”

인간의 언어로는 무엇이라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의 헌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이제 그만 내려놓고 쉴 법도 한데 더 깊은 산속 오지마을로 가는 그를 누가 말릴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에는 원주민들을 치료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그곳은 전염병과 가난으로 유아사망률이 높은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도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저 청진기와 약만 있으면 된다. 그는 발걸음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사명을 다하고 있다. 진료를 마치고나서는 재회를 소망하며 환자들과 사진을 찍는다.

“사역 갔다 온 사진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많이 아픈 아이들을 다시 찾아갈 때도 그 사진을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5년 동안 찾아간 환자도 있다. 한국에서는 약물치료만으로도 쉽게 고칠 수 있는 고혈압 환자였는데 그 환자는 약을 구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 환자가 걱정해서 고소공포증이 있는 그가 아찔한 높이의 다리를 매번 건너고 있다. 이번에 찾아갔을 때에는 어쩌면 다시 오지 못할 것 같이라며 3개월 치 약을 줬다. 그리고 당부했다.

“내가 오지 않으면 약을 꼭 사먹으세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그는 왜 의료선교를 고집하는 걸까.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많거든요. 나는 단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박누가 선교사의 가슴시린 사랑이야기는 CGNTV 개국 12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사랑하기 때문에’에서 만날 수 있다. 4월 2일 오전 10시 30분, 4월 4일 오후 3시 30분(재방송)에 방송된다. 내레이션은 배우 김석훈이 했다.

“온 가족이 함께 들르는 사랑방”

온누리도서관, 도서 1만 권, DVD 1천 개 구비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아이들이 책 읽느라 집에 안 가려고 해요.”

지난 주일(3월 26일) 온누리도서관에서 만난 차세대들과 부모들의 이야기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옆 구 골프연습장 자리에 위치한 온누리도서관에 가면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워진다는 말이다. 온 가족이 함께 들르는 사랑방이 따로 없다. 온누리도서관에는 장벽이 없다. 차세대, 부모,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부활절에는 3행시(부활절), 4행시(예수탄생), 5행시(다시 사셨네)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차세대와 부모,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온누리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다.

방호지 성도 가족(아내 박미진, 첫째 방주(12세), 둘째 평화(9세), 셋째 비전(7세))이 매주 주일 교회에 오면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이 있다. 바로 온누리도서관이다. 4년 전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을 지나다 두란노를 맞은편에 있던 온누리도서관을 발견했다. 그 순간의 감동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아이들에게 책을 사주고 싶어도 사주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도서관이 있으니 아이들이 책을 마음껏 볼 수 있잖아요. 이보다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을 떠올리는 방호지 성도의 눈가가 금세 촉촉해졌다. 그는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좋아하는 책 한 권을 마음껏 사주지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유난히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기특했지만 사달라고 하는 책을 사줄 형편이 안 되는 현실과 마주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다.

“얼마나 사주고 싶었어요. 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그냥 돌아서야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사줬다가 환불한 때도 있었다. 그런 그에게 온누리도서관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 그가 아이들에게 사주고 싶었던 책들이 온누리도서관에 모두 있었다. 그동안 방호지 성도네가 온누리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무려 805권이나 된다. 온누리도서관이 아이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었다. 그의 아내 박미진 성도에게도 최고의 장소이다.

“일반도서관에 가면 신앙서적이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온누리도서관에는 궁금하고 꼭 보고 싶었던 신앙서적들이 많아서 정말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 책 읽는 재미도 쏠쏠하구요.”

온누리도서관에 열심히 다니면서 가정예배도 더욱 풍성해졌다. 아이들이 온누리도서관에서 신앙서적을 많이 읽은 것이 성경의 흐름

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방호지 성도가 온누리도서관에서 깊이 감동 받은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온누리도서관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다.

“매번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해주세요. 새로운 책이 나오면 잊지 않고 알려주시고요. 그분들에게는 작은 배려이고, 도움인 것 같지만 저희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감동이에요.”

방호지 성도 부부는 온누리도서관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며 더 많은 성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온누리도서관은 온 가족이 함께 들르는 사랑방이에요. 아이들 책 읽는 모습도 보고, 아이들에게 책 읽는 부모의 모습도 보여 줄 수 있는 공간이랍니다. 저희와 함께 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4월 19일 차세대 공모전 실시

서빙고 온누리도서관은 1999년 문을 열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건강한 기독교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도서 1만여 권을 열람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DVD 1천여 개도 구비되어 있다. 도서시스템도 일반 도서관 못지않다. 2013년에는 보유 장서를 한국십진분류(KDC) 표준체계에 맞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대출 및 반납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었다. 매주 90여 명이 온누리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고, 150여 권의 책을 대여하고 있다. 종교서적 대출(누적 8,946권)이 가장 많다. <명화와 함께하는 성경만화 시리즈>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도서이다. 문학(누적 3,028권), 순수과학(누적 3,109권), 역사(누적 1,169권) 서적 순으로 인기가 있다.

온누리도서관은 하용조 목사의 도서 서가, 이재훈 목사의 도서 서가, 어린이 도서 서가, DVD 서가, 신간도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책들을 홈페이지(<http://library.onnuri.org>)에서 검색하고 예약 및 반납, 연기까지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차세대를 위한 다양한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재작년부터 실시한 ‘아기예수 그림 그리기’ 공모전이 바로 그것이다. 차세대들이 더욱 굳건한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 그 취지다. 올해 공모전은 4월 19일에 실시된다. 3행시(부활절), 4행시(예수탄생), 5행시(다시 사셨네)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활절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온누리도서관은 매주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서빙고 온

누리교회 옆 구 골프연습장 자리에 위치해 있다. 도서 대출은 목회행정실에서 iSchool 카드를 발행받아야 가능하다. 책은 두 권씩 2주, DVD는 1종씩 1주 동안 대여해 준다.

온누리도서관 봉사자 모집

자격: 등록교인 누구나
시간: 8시 30분~11시, 11시~14시, 14시~17시 (선택)
역할: 대출 및 반납, 서가정리, 자료 분류 및 입력, 장서개발, 홍보, 도서관리, 중보기도 등
문의: 형세우 팀장 010-8211-7404

사역칼럼

지성에 영성을 더했다

재작년 겨울,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차세대의 지성과 영성 성장을 위해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에 있던 온누리도서관을 새로운 건물로 옮기도록 해주셨다. 도서관이 훨씬 넓어졌고, 주변 환경이 조용해서 책 읽기에 너무 좋은 곳이다. 그동안 오갈 데 없었던 많은 차세대들이 온누리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란 도서, 문서, 기록, 출판물 등의 자료를 모아 둔 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온누리도서관은 지성에 영성을 더했다. 다시 말해 차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성과 영성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공간이다.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빨리 수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가 많다. 온누리도서관은 그렇지 않다. 진리와 진실이 담긴 정보를 제공해 준다. 책을 읽음으로 정직한 영을 공급해주는 것이다. 정직한 영을 공급

해 줄 때 차세대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세울 수 있다. 무엇보다 어렸을 때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기억이 평생 가기 때문이다. 어릴 때 좋은 영향을 받으면 긍정적이게 되고, 나쁜 영향을 받으면 부정적이게 된다. 자녀들이 좋은 책을 만나 긍정적인 삶을 살길 원하는 부모라면 꼭 한 번 방문해주길 바란다.

온누리도서관에 더 좋은 도서들이 채워지기를 소망한다. 성도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를 기도한다. 온누리도서관을 잘 이끌어주고 계신 이준호 목사님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김형중 장로
(온누리도서관 담당)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명랑한 싱글 라이프

올해 꼭 마흔이 된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혼자 먹는 밥이 익숙하고,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낸다. 홀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잘 안다. 혼자 영화를 보거나 혼자 여행을 가는 것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 물론 고충도 있다. 노처녀 히스테리 부린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신경 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명절이나 집안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결혼 안 하나는 잔소리를 듣는 것도 유쾌한 일은 아니다.

통계청(2016년 11월)에 따르면 한국에서 1인 가구가 가장 흔하다고 한다.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한다. 10가구 중 3가구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눈 여겨볼만한 기사가 〈빛과 소금〉 4월호에 실렸다.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를 제목으로 명랑하고, 화려하고, 고독하고, 행복한 싱글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실었다. 그 기사를 요약 정리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예수와 바울, 초대교회 싱글녀들

구약성경을 배경으로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이 남녀가 짝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것, 그리하여 이 땅에 풍성한 생명 세계가 충만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은총의 선물이요, 복락이라고 간주할 근거는 많다. 그러나 신약성경으로 내려오면 사정이 좀 달라진다. 그 주인공 예수는 자랄한 이설들이 있긴 하지만 독신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공변된 사역에 매진하셨다. 그는 나면서 고자인 남자도 있지만 천국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고자 된 사람도 있다고 한 번 언급했다. 이는 무슨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라는 좀 더 고차원적인 명분을 따라 헌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혼을 포기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 같다. 어디 포기한 게 결혼뿐인가. 예수는 이미 가정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면서 아비와 생업을 버리고 떠날 것을 종용하는 것 같은 매우 매서운 제자도의 요구 조건을 내걸기도 하셨다. 혈통적 가정에 집착하여 그 부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투로 말씀하기도 하셨다. 그 대안으로 그가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더 숭고한 목표를 위해 혈통의 경계를 뛰어넘어 만나고 재결합된 ‘하나님의 가족’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께서 혈통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인용하면서 이미 혼인을 통해 맺어진 부부관계를 깨고 이혼하는 것을 엄격한 금지 규율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사도 바울은 어떤가. 그 역시 예수의 명분을 좇아 선교사역에 매진하면서 혼인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어쩌면 혼인 이후 자발적인 독신을 추구한 것 같다. 특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대목에서 바울은 처녀들이 결



싱글 라이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고독하거나 화려하거나. 어떤 선택이든 존중받을 필요가 있고, 각자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혼하는 문제와 과부들이 재혼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비록 결혼과 재혼이 죄짓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머물며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조언했다. 이는 모든 공동체 성원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계명이나 규범적 율례가 아니지만, 바울의 신학적 확신에 따라 나름대로 효율적인 지침으로 제시되었다. 세상의 종말이 멀지 않았고, 이 세상의 형적은 금세 지나간다는 신앙적 확신이 그 이유였다. 또 한 가지, 혼인하면 배우자와 주님 사이에 마음이 갈려 주님께 오로지 헌신하기 어렵다는 실천적인 문제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안을 발표한 흔적이 엿보인다. 젊은 과부(실제 과부가 아닌 처녀 과부)는 그 명단에서 제외해 혼인을 독려하고, 나이 60세 넘고 한 남편의 아내 된 적이 있는 실제 과부로서 일정한 신앙적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한정해 참 과부로 봉직하라는 것이었다. 이렇듯 운영상의 부작용과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처녀 과부들의 맹렬한 신앙적 도전과 담대한 선교행전은 이후 교회가 더 제도화하고 안정되어 가면서 수녀회 조직의 배경이 된 것 같다. 또한 예수와 바울의 독신자 모델도 가톨릭교회의 성직자가 혼인을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을 향해 순

와 성실한 관리가 필요하다. 독신적 삶은 고립되기 쉬운 약점을 가지고 있다. 독신이 고립이 되지 않고 독립을 유지하되, 다양한 주변 개체 생명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더불어 어울려 공통 관심의 삶의 영역을 공유하며 대화할 수 있다면 꼭 몸을 섞어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대화로써의 사랑이 충분히 가능하다. 동류의 신앙고백을 공유한다면 활달한 만남과 사귀의 동아리 속에 자신만의 배려만큼 타인을 배려하면서 교학상장(敎學相長,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선생도 학생도 발전하다)할 수 있다.

둘째, 독신은 ‘내 한 몸 챙기기도 버거운데 남들 사정이야 내가 알게 뭐람’ 식의 자조감에 젖기 쉽다. 특히 이 땅의 각종 조직은 과년한 여성 독신자에 대한 시선이 냉랭하다. 독신자들 사이의 연대와 상호보살핌이 필요하다.

셋째, 독신자 나름의 가치 지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독신 생활이기에 연약한 부분도, 장점도 존재한다. 독신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쾌활한 동선, 인간관계의 상투적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경계를 넘어 행보할 수 있는 명랑한 자유 등의 풍부한 장점을 적극 선용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독거함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장(磁場) 밖으로 떨어져 나간 피폐한 소외가 아니라 오히려 창의적 소명을 개척할 수 있는 틈새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그 또한 열매가 풍성하리라 본다.

끝으로, 우리는 독신자들 혼인한 부부든 결국 이 땅에 독신자로 남아 늙고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부부나 가족이 똑같이 한낱한시에 죽지 않는 한 결국 혼자 남아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야 할 가난한 단독자의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땅에 매일 것 없이 각자 부여받은 은총의 분깃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만이 목표요 사명이 될 것이다. 그것이 확장되어 교회에 신앙 문화의 일부로 체질화될 때 교회는 명실공히 열린 공동체로 성숙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독신의 삶이 만만치 않다.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라도
앞가림을 착실하게 하면서
건실한 독신자로서의 행보를 추구하라.
그 또한 열매가 풍성하리라.

자신의 육체적 정욕을 달래지 못하고 이런 쪽으로 연단이 안 된 사람은 마귀에게 유혹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는 차라리 혼인하는 것이 낫다고 그는 조언했다.

예수와 바울의 이런 독신 모델과 사유에 의거하여 적잖은 처녀들이 실제로 과부도 아니면서 과부를 자처한 이른바 ‘처녀-과부’(virginal widow)가 초대교회에 적잖이 양산되었다. 디모데전서에 의하면 과잉으로 범람하는 젊은 과부들이 교회 공동체의 성무 일부(기도와 중보 등 포함해)를 맡아 일종의 ‘성직단’을 구성해 섬기면서 교회에 생계를 의탁한 연고로 그 과부하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부 성직단의 구조 조

명하기 위해 독신을 지향하는 규범에 암암리에 중요한 선례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명랑한 싱글 라이프를 위하여

독신의 삶이 만만치 않다. 독신에 대한 고정관념(정체적 고립 속에 히스테리를 부추기고, 배타적이고, 비뚤어진 심성을 강화하기 쉽다는 세상의 통념)을 깨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앞가림을 착실하게 하면서 건실한 독신자로서의 행보를 추구해야 한다.

첫째, 개체로서의 생명이 동거하는 짝을 지닌 듀엣의 생명 못지않게 소중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독자적 삶에 대한 넉넉한 배려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성경 속 인물 이야기

의학의 아버지, 의성(醫聖)이라 불리던 고대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BC 460~370)는 인간을 담즙질,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했어요. 이 이론은 곧 DISC 성격유형으로 발전해 담즙질은 주도형(Dominance), 다혈질은 사교형(Influence), 점액질은 안정형(Steadiness), 우울질은 신중형(Conscientiousness)으로 구분되었어요.

성경에도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매사에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이며 계획적이고 실제적이었던 바울은 담즙질(주도형)에 속해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며 우울하거나 조용한 것을 참지 못하는 다혈질(사교형)의 대표주자는 베드로예요.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면서도 매사에 진지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당차게 내비치지 못하는 착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전형적인 점액질(안정형) 인물입니다. 과묵하고 매사가 진지하면서도 분석적인 우울질(신중형)의 성격은 완벽하지 못함에 따른 실패의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성격인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랍니다.

흔히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난 모세의 이집트인 살인사건을 가리켜 ‘순간 욕하는 마음을 참지 못해 저지른 모세의 다혈질적인 실수’라고 생각해요. 이 사건은 살인이라는 부정적 색채가 워낙 짙기에 모세의 행동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단지 불끈 생긴 격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저지른 단순한 실수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 살인사건을 결코 모세의

우발적 실수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찌다가 욕하는 마음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리저리 살펴보고 실행한 계획된 범행이었어요(출 2:12). 사도행전을 보면 스테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으면서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는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가운데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편을 들러 갔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행 7:24).

자기 백성의 원통한 일을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행위예요. 사도행전은 모세의 행위를 마치 하나님의 갚으심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대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고 있는 것으로 말이지요. 게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모세는 왕자 신분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모세가 궁전에 있었던 때를 아멘호텝(Amenhotep) 1세 시절이나 투트모스(Thutmose) 1세의 딸 하셉수트(Hatshepsut)가 20년 간 섭정을 하고 있었던 시대로 보는데, 모세의 양아버니가 하셉수트였다고 한다면 이집트 왕자 모세의 권세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사람 한 명 죽였다고 바로를 피해 도망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동족인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키려했던 모종의 계략이 탄로나 도망간 것으로 보는 게 맞지요. 이렇듯 모세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로서,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 원수를 죽인 것이지요.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아간 행위를 ‘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으로 말하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시는 보복행위’였다는 것을 정확히 뒷받침해주고 있어요(히 11:24~26).

따라서 이 사건은 도덕적 의미에서 보는 ‘우발적 살인사건’, ‘다혈질적인 어떤 사내의 무절제한 살인행위’로 폄하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제 하에 있던 자기 백성을 한 구원자를 통해 구원할 것임을 보여준 사건’으로 재평가되어야 해요.

우리는 모세의 삶과 사역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어요. 포악한 헤롯왕에 의해 죽임당할 뻔했던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눕혀있는 것처럼 포악한 바로 왕에 의해 죽임당할 뻔했던 모세도 은혜의 갈대상자로 건짐 받았고, 공생애 시작 전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간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전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과 비슷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청동으로 만든 뱀을 들어 올려 독사로 부터 백성을 구해낸 모세를 만날 수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 3:14~15).

이처럼 모세는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왕)로서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중보자요, 입법자 역할을 한 것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과 역할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한 모세는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혈육인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방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저주로 나병에 걸린 미리암과 아론을 위해 중보했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민 12:3). 예수님이 당시 회개하지 않는 도사를 향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쉬을 얻을 것이다”(마 11:29)라고 말씀하신 것은 따스한 주님의 품으로 들어와 상처받은 심신의 위로를 받으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보고, 깨닫고, 따르는 것이예요.

다분히 인생의 오점으로 남게 될 수도 있었던 그 살인사건은 모세의 다혈질이 빛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용기 있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낸 신중한 행동이었어요. 모세의 그런 성격을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120년 일생을 신중하고도 책임감 있는 지도자로 세wig가세요.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마 10:30) 하나님은 저마다 다른 우리의 성격도 온화하게 꿰뚫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이런 성격이 좋아’, ‘나는 저런 성격은 질색이야’ 보다는 ‘저런 성격의 소유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까?’라고 기대해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곽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재미있는 이스라엘 이야기

이스라엘의 3대 성지를 꼽으라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갈릴리호수가 될 것이다.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예수탄생 기념교회’가 있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재미난 별 모양을 발견하게 된다. 보통 별이라고 하면 오각형을 떠올린다. 간혹 이스라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국기에 들어가는 육각형별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예수탄생 기념교회 안에는 14각형별이 장식되어 있다.

‘별’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데서 비롯된 것임을 쉽게 연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14각형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모든 역사 기록에는 기록자의 의도, 즉 사관이 강하게 반영되는데 고대 세계의 족보 기록 역시 그러했다.

마태가 제시한 예수님의 족보는 굳이 14라는 숫자에 쫓겨 맞추려는 의도를 다분히 보여준다.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면서(마 1:1) 언뜻 지루해 보이는 족보 리스트를 나열하고 있다(마 1:2~16). 17절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요약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각을 14대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마 1:17)



면 이것이 사실과 다름을 알게 된다.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는 모두 41대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눈 부분이 14대라면 42대(14*3=42)가 등장해야 맞다. 그렇다면 분명 1대가 부족하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라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 현대인들이 볼 때는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부분(아브라함-다윗)은 14대, 두 번째 부분(솔로몬-요시아)은 13대, 세 번째 부분(여고냐-그리스도)은 14대가 나온다. 여기서 마태는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에서 여고

히브리어 알파벳은 각 글자가 숫자 기능도 겸하는데 단어가 갖는 숫자의 값을 세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유대적 관습이 있다. 이를 전문용어로 ‘기마트리아’라고 한다. ‘다비드’는 히브리어에서 3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자음이 갖고 있는 숫자적 의미를 합산하면 14가 된다.

달렛(4) + 바브(6) + 달렛(4) = 14

이처럼 14라는 숫자는 다윗을 의미하는 강력한 상징이 되는데, 이러한 기마트리아 상징은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인 유대인들에게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것이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족보를 통해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대인들에게 통용되던 ‘다윗=14’라는 공식을 3번 반복함으로써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분,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류모세 선교사
(열린다성경아카데미 대표, 경희살롱한의원 원장)

베들레헴 예수탄생 교회의 14각형별



사진은 2015년 카운트다운 집회.

2017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5월 26~27일 양재, 28일 장충실내체육관

청년들을 위한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이 막 오른다. 5월 26일과 27일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28일에는 장충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카운트다운 집회는 카운트 7~0까지 주제별로 진행된다. 카운트 7~5에서는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된다. 집회의 포문을 여는 카운트 7은 이재훈 담임목사가 ‘본질을 회복하라’를 주제로 강의한다. 카운트 6은 이상준 목사가 ‘성령에 불들리라’, 카운트 5는 이용규 선교사 ‘내려

놓음’ 저자가 ‘예수로 살아가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카운트 4~2는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된다. 카운트 4는 김춘근 교수(JAMA/All nations 대표)가 ‘부르심에 응답하라’, 카운트 3은 박종길 목사가 ‘비전을 준비하라’, 카운트 2는 존파이퍼 목사(베들레헴침례교회)가 ‘모험이 답이다’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한다. 마지막 카운트 1~0에서는 결신 및 파송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된다. 카운트 1은 존파이퍼 목사가 ‘열방을 기쁘게 하라’, 카운트 0은 이재

훈 담임목사가 ‘세상을 향해 가라’를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한다.

카운트다운 참가신청은 온라인(www.countdown.or.kr)으로만 가능하다. 회비는 4월 25일까지 2만 5천원, 5월 16일까지 3만원, 당일 접수는 3만 5천원이다.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은 청년 세대의 영적 부흥과 쇄신을 목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축제다. 올해가 4번째 집회이다.

문의: 02-570-7345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한국해비타트 신임 이사장에 윤형주 장로



윤형주 장로(서초B공동체)가 한국해비타트 신임 이사장에 선임됐다. 한국해비타트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윤형주 장로를 공식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형주 장로는 1994년 한국해비타트 설립 때부터 활동해왔다. 홍보위원장,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해비타트는 1976년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비영리 국제단체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집과 마을을 지어주고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미국 애틀랜타 국제본부를 중심으로 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 유럽·중아시아·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등 4개 지역에 본부를 두고 있다.

한국해비타트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 알려진 사단법인이다. 1994년 설립됐다. 지금까지 국내 5천여 가정과 해외 4만 5천여 가정의 집을 새로 지어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안산M센터, ‘와이어(Yer)공동체’ 신설

매주 주일 오후 2시 4층 만나홀

안산M센터 대학청년부 와이어(Yer)공동체가 신설됐다. 그동안 차세대에서 양육해 온 다문화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 청년부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다문화 청년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와이어공동체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안산M센터 4층 만나홀에

서 드린다. 현재 10명의 다문화 청년들이 출석하고 있다. 다문화공동체인 만큼 중국, 카자흐스탄, 몽골, 러시아(고려인) 등 국적이 다양하다. 와이어공동체에는 장벽이 없다. 다문화 청년들이나 다문화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환영한다.

문의: 010-7622-7247

인천 중국어예배 평택 영아부 예배 신설

인천 온누리교회가 중국어예배를 신설한다. 4월 9일 첫 예배를 드린다. 인천 중국어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3층 경전홀에서 드린다. 중국 유학생이나 이주민들이 대상이다.

평택 온누리교회는 영아부 예배를 신설했다. 매주 주일 오전 11시 30분 꿈아이홀에서 예배를 드린다. 3~4세 자녀와 부모가 대상이다.

문의: 인천 032-437-9686

평택 010-3764-3182

115기 하나님의 가정 훈련학교 모집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에서 11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된다. 1주차는 온누리교회, 2~4주차는 진세골 사랑의 집(경기도 광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회비는 가정 당 30만원, 자녀 동반 시 5만원이 추가된다. 선착순 24가정을 모집한다.

문의: 김상범 총무(010-5471-0854)

4월 비전헌금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후원

다음 주일(9일) 봉헌하는 4월 비전헌금은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스리랑카 베다족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에 사용된다. 스리랑카 베다족은 1996년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 종족이다. 스리랑카 출신 목회자 밀턴 목사가 온누리교회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 교회 1개를 세웠고 그곳에서 3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베다족 출신 목회자 요한 목사도 배출했다. 20년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역하면서 예수 믿는 주민들이 많아졌지만, 아직도 과거 습관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베다족과 함께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다음 주일(9일)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안내데스크가 설치된다. HIV 감염 아동 기도후원자 모집, 아프리카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보내기 캠페인, 생명수 보내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대전, 여성위한 전도집회 ‘만남’ 개최

4월 19일 오전 10시 본당

대전 온누리교회가 여성들을 위한 전도집회 ‘만남’을 개최한다. 4월 19일 오전 10시 대전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가수 노사연, 색소폰연주자 루카스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평소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는 여성들을 초청하면 된다. 매주 수요일 여성예배를 드리고 나서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이어지고 있다.

문의: 010-4432-9338

안산M센터 토요일문화강좌 강사 모집

안산M센터 토요일문화강좌를 섬겨줄 강사를 모집하고 있다. 기타, 피아노 강사 최소 3명이 필요하다. 기타, 피아노 강좌 수강생은 각각 20명이지만 강사가 많이 부족한 상태다. 토요일문화강좌는 3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12주 동안 오후 3시 30분과 5시 20분에 안산M센터에서 진행된다. 봉사는 선택할 수 있다. 중고 클래식 기타, 멜로디언, 전자 피아노도 기증받고 있다. 문의: 양옥진 전도사 010-3837-3927

‘청년부채탈출 119’ 참가자 모집

사회선교부에서 ‘청년부채탈출 119’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년부채탈출 119는 부채탈출을 위한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부채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50세 이하(196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온누리교회 청장년이 대상이다. 주변에 부채문제로 고민하는 성도가 있으면 추천해도 된다.

참가신청은 5월 15일까지 <http://simonnnuri.org/loving-u-debt>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이메일(debt119@naver.com)이나 팩스(0504-385-3353)로 보내면 된다. 부채상담은 전문가와 1:1로 이루어지고, 개인정보는 비밀보장 및 보호된다. 청년부채탈출 119는 학자금 대출, 실직이나 실업, 생계비 조달, 과소비 등으로 위기에 처한 청장년들을 도와주는 부채상담 프로그램이다. 외부 재정상담 전문가관과 협력해서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의: 02-3215-3434

제65회 성령수련회 참가자 모집

제65회 성령수련회가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개최된다. 성령님을 알고 싶고 성령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전화 또는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원이다. 참가자들은 4월 22일 오후 12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오후 1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개인차량을 이용할 성도들은 오후 3시까지 도착하면 된다. 문의: 02-3215-3533

제1142호 | 2017년 4월 2일(주일)

■ 일대일 제자수로 간증



/ 조재환 성도(예수사랑부)

조건 없는 사랑의 정체

사람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과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었다. 예수사랑부는 그러한 모습을 몸소 보여주는 공동체였다. 나는 매주 주일 발달장애인 청년들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대학시절 내내 예수사랑부에 출석했다. 말씀을 읽기보다 장애인 섬김이 우선이었고, 또 그것이 옳다고 여겼다. ‘말보다 실천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읽기는 따분하고 지겨움 그 자체였다.

나는 예수사랑부에서 막내나 다름없었다. 전도사님과 지체들,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이 유독 많이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셨다. 누군가를 섬기러 교회에 온다고 했지만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잘해 주실까?”

내가 받고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의 정체에 궁금했다. 웬지 성경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을 것만 같았다. 8년여 동안 예수사랑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온누리교회 성도가 아니었던 나는 당장 교회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그렇게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시작했다.

매주 주일 아침 7시 30분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기 위해 험레벌떡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유독 잠이 많은 나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한 지난 10주는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했다. 예수님께서 겻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계실 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새를 못 참고 잠이 든 것 같이 나 역시도 말씀보다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였다. 세상의 일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예수님께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양육자님께서 끝까지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이끌어주셨다. 말씀과 함께 하는 삶, 경건하게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다. 게으른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권면도 해주셨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아직은 잘 알지 못한다. 대체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어디서 온 것인지 완전한 해답도 얻지 못하였다. 다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내어드려야 함을 알게 되었다. 매일 큐티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언젠가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리라 확신한다.

■ Point5 선교마라톤 후기



/ 김기재 형제(Point5공동체)

팀워크 덕분이었다

Point5공동체에는 달리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달리는 선교사들은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본인이 달릴 수 있는 만큼 달린다. 최소 10km부터 42.195km 풀코스에도 전하는 지체도 있다. 달리는 선교사들이 달린 거리를 더한 숫자만큼 보내는 선교사들이 선교헌금을 작성한다.

나는 지난해 보내는 선교사였다. km당 선교헌금 100원을 작성했다. 달리는 선교사들이 약 600km를 달려서 6만 원을 헌금했다. 올해는 공동체 사역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고 싶었다. 그 길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형태로든 공동체와 함께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 시작은 달리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평소 달리기를 좋아하는 나는 20km를 달릴 것을 작성하고 훈련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 지체들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섬기고 아끼는 마음을 배웠다. 함께 훈련하다 보니 체력도 좋아져서 대회 당일엔 30km로 목표를 상향했다.

3월 19일이 대회였다. 함께 훈련한 지체들과 30km 지점에 도달했는데 생각보다 몸이 가벼웠다. ‘선교를 위해 조금만 더 달려보자’

고 생각하고 조금씩 더 달렸더니 어느새 풀코스를 완주했다.

달린 거리가 많아질수록 몸과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가장 기억에 남는 구간은 32km와 35km 지점이었다. 30km 지점에서 함께 달리던 지체들과 인사하고 혼자 달려 나갔다. 혼자 달리던 중에 또 다른 지체를 만났고 둘이서 ‘함께 완주하자’고 다짐했다. 모든 마라톤이 고통을 느끼는 지점인 35km에서는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엄청난 고통과 걱정이 몰려왔다. 이때부터는 선교마라톤을 위해 중보해주는 지체들과 달리는 선교사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진했다. 먼저 경주를 마친 지체들의 격려를 받으며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다. 선교에 기여했다는 기쁨이 몰려왔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Point5공동체 팀워크 덕분이었다. 이번 선교마라톤을 통해서 개척자 정신과 팀워크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하는 축제였다.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계획, 성령님의 함께하심, 지체들의 섬김과 사랑,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 45기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권영석, 박헌 부부(가정사역공동체)

세워주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는 큰 기대감이 있었고, 남편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45기 젊은부부학교에 참가하면서 말이다. 지금은 둘 다 완전히 달라졌다. 젊은부부학교 과정을 하면서 느낀 것이 참 많다. 그 중에서도 ‘부부십계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부부십계명’을 정한 날부터 순종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 계명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었다. 첫날에는 남편이 나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준 시간이 10초 정도 됐는데 지금은 나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손을 잡아준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가평에서 1박2일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짹짹 놀랐다. 남편과 내가 어느 순간부터 젊은부부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2주차 때만 해도 내가 물어보기 전에는 말을 아꼈던 남편이었기에 더욱 놀랐다. 이런 변화만으로도 감사한데 남편이 젊은부부학교 강의를 듣고 단했던 마음과 귀가 열렸다고 고백을 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남편은 서로의 원가족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던 것을 계기로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했다. 조원들과 함께 나는 시간도 정말 좋았다고 했다. 남편이 나에게 “부부학교 45기 조장을 맡기엔 부족하겠지? 그럼 자녀부를 먼저 섬겨볼까?”라고 묻기도 했다. 남편을 바라보는데 함박미소가 지어졌다. 그동안 기도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남편의 회사 동료 부부에게도 젊은부부학교를 추천하겠다고 했다.

우리 부부의 가장 큰 변화는 기도와 말씀 읽기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남편도 변하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 그동안 남편 잘못으로 다투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이기심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남편을 가장으로 세워주고, 남편 말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 입교간증



/ 박경민 성도(S브릿지공동체)

이 시련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교회 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 뜨거운 신앙은 없었지만 매주 교회에 출석했다.

교회 식구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천국에 가는 입장권을 확보해두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어진 환경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마음이 어느새 욕심이 되었다. 거둔 성과를 내 뒤편으로 돌렸다.

그럼에도 나의 삶은 비교적 순탄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든직한 남편, 사랑스러운 딸을 주셨다. 행복해야 마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 한편에 늘 공허함이 있었다. 주님과와의 관계회복이 시급하다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세상이 주는 풍족함에 몰들 어 못 들은 척 했다.

지난해 말, 100m 달리기 하듯 살던 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처음에는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내 자신에게 실망감이 들었다.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 커리어를 쌓는 가속도가 붙었

는데 큰 시련을 주신 것 같았다.

올해 2월 수술대에 올랐다. 두려워야 했지만 감사함으로 눈물이 났다. 수술을 마치고 눈을 떠보니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믿음의 가정을 주신 것, 그 안에서 성실하게 학업을 마칠 수 있었던 것,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하신 것, 귀한 은혜의 딸을 주신 것까지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한 것이 없었다.

누군가는 젊은 나에게 질병이 찾아온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건강에 대한 시련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고백한다.

앞으로 내 삶의 키워드는 나눔이다. 지금까지는 철저한 이기심으로 나만을 위해 살아왔다. 작게는 가정에서 내가 먼저 양보할 것이다. 크게는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나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뤄지기를 소망한다.

전문가 칼럼

생각해봅시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사역팀



정부는 집사(스마트사역팀장, 유니셀(주) IoT사업부 상무)

제4차 산업혁명을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만들어낸 ‘혁명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산업과 ICT의 융합은 산업의 경계를 허물었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제

품개발이 시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요즘 3가지 ‘고’ (GO)가 핫이슈다. 첫 번째 고는 잘 알고 있는 알파고, 두 번째 고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모바일게임 포켓몬고다. 세 번째 고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으로 스마트 마트(mart)를 구현한 아마존 고(Amazon GO)다. 아마존 고를 방문한 고객은 계산대 앞에서 줄을 길게 설 필요가 없다. 계산대도, 계산원도 없다. 물건을 고르고 매장 밖으로 그냥 가지고 나가면 된다.

인공지능(AI)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인간의 언어를 분석해서 지식을 학습하고 말로 답변할 수 있다. 말을 인식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여행지에 맞는 날씨의 옷을 추천해주고, 재판에 필요한 적합한 판례를 찾아 주기도 하고, 어린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형(Toy)도 선물로 줄 수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융합은 생활 전반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병원에서도 로봇의 운송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농약용 드론을 이용하고 있다. 나이 든 농부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센서 등을 통해 들어오는 많은 데이터(Big Data)를 분석하고 판단해서 환경에 맞게 효율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 늘고 있다. 콜센터에도 로봇 상담원이 등장해서 상담원을 대체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각각의 로봇을 제어하거나 인공지능의 각종 알고리즘 구현

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실현된다. 인터넷 매장에서 오늘의 재고상품을 선택하고 주문하면 3시간 이내에 집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도 있다. 아웃렛 매장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이런 전자상거래 혁명 뒤에도 소프트웨어가 있다. 아피스 코르 사(社)의 3D 프린터가 24시간 안에 11평정도 되는 작은 집 한 채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100만 원만 들이면 집에도 3D 프린터를 장만해서 가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3D 프린터 동작을 위해서도 소프트웨어가 필수 요소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 모습을 끊임없이 교회 밖에서 찾고 있다. 세상의 빠른 변화를 교회 안에 있으면 잘 느끼지 못하고 지루해한다. 우리 청소년들의 관심을 교회나 가상의 교회 공간에서 찾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청소년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지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 청소년들이 궁금한 점, 아픈 마음, 갈구하는 기도제목을 누군가와 편하게 대화하면서 알려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SNS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온누리 스마트사역팀의 목표는 IT기술로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다. 밖으로 향하는 청소년들의 관심을 교회 안으로 가져 오기 위해서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IT교육을 하려고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그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기본적인 코딩스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관심을 공유하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복음을 알아가도록 돕는 강좌도 준비하고 있다. IT인들과 비IT인들이 스마트사역팀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스마트사역팀 IT 동역자 모집〉
문의: onnurismart@gmail.com



강종도 총무(사회선교본부, OCC공동체)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매주 주일이면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외면하지 말자는 사회선교 실천운동이다. 먼저 마음을 열고 불편을 감수하면

서 이웃들과 함께하겠다는 성도와 교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지 없이 말씀하셨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을 처음 시작했을 때 ‘성도님들이 번거롭고, 불편한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교회도 성도님들의 자발적이고 선한 참여를 유도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이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다.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반드시 필요한 캠페인이라는 성도님들의 뚜렷한 인식이 이 캠페인이 자리 잡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다.

첫 번째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은 그야말로 ‘차 없는 날’로 기억된다. 모든 성도님들의 호응으로 주차장이 텅텅 비었다. 넓은 주차장을 활용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나눔 박람회를 개최했었다. 매주 주일이면 교통체증으로 고통 받던 인근 주민들도 그날만큼은 경적소리 하나 없는 주말을 보냈다. 정말 축제날이었다. 그 아름다운 축제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

다소 부족하고 경험 없이 시작한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 담당자로서 기본 취지

를 다시 한 번 나누고 싶다. 교회에 차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 내 몸같이 소중한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다. 가족들과 함께 대중교통으로 교회에 오가면서 교제하기도 좋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만큼은 우리가 불편을 경험하면서 이웃들이 겪는 불편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결국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은 ‘행복한 불편함’이다. 먼 거리에서 오시는 성도들은 조금 더 일찍 출발하면 평소보다 여유 있게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은 환경문제를 생각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점점 위력을 더해가고 있고, 자동차에 의한 국내 미세먼지 발생도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사랑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마음을 모으고 실천해야 한다.

지난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에도 많은 성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왔다. 아쉬운 것은 일부 성도들이 교회 주변 아파트와 인접 도로에 불법주차를 해서 눈살을 찌푸렸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의 의미가 퇴색된 것 같아 몹시 아쉬웠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이 더 많은 성도님들께 공감을 사지 못한 것이 아닌지 반성을 했다.

온누리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이 한국 교회에 소문나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전파하는 더 좋은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진짜 행복한 불편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보다 앞선 그리스도 안에서의 양심과 가치가 사회적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온누리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순장칼럼



이봉우 집사(강남B공동체)

2003년 온누리교회를 처음 왔다. 지쳐있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 나는 작은 시골에서 자랐다. 놀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유일한 놀이터였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결혼하면서부터 했다. 온누리교회를 오기 전에는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다. 부부가 함께 공동체와 리더십 훈련을 받고 교회 2곳을 개척했다. 교회를 개

척하면서 성령체험도 했다. 성령체험을 하고 나서는 말씀훈련에 집중했다. 하지만 직장 교회일을 병행하는 것이 참으로 버거웠다. 사업을 하다 보니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늘어나는 교회 일을 놓을 수가 없었다. 직장일과 교회일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지쳐버린 우리 부부에게 힘이 필요했다. 다시 하나님을 찾기 위한 총전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갑자기 청년 시절이 떠올랐다. 청년 시절 뜨겁게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기억이 나서 온누리교회를 찾아왔다. 새가족반을 마치고 순을 배정받았다. 당시에는 순장을 할 사람이 부족했다. 순장님과 순모님이

사역에 동참해줄 것을 권하셨다. 이미 다른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순장 직분과 차세대를 섬기게 됐다. 그렇게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순장과 다락방장으로 섬겼다.

내가 순장으로 섬길 때 한 가정이 찾아왔다. 아기가 있는 젊은 부부였다. 그 부부는 순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랐지만 적당한 순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 젊은 부부의 사연을 듣고 우리 순으로 초대했다. 그 부부와 함께 아이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 차세대를 섬겼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을 했다. 그들을 통해 순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다. 잃어버린 어린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말이다.

또 다시 순장으로 섬기게 되었다. 열정이 사라진 공동체에 열정을 다시 불어 넣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예배를 만들고 싶다. 순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자의 역할이다. 순원들이 직장, 교회, 가정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한다. 순장으로서 순원들에게 좋은 말씀을 권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나의 바람은 순원들이 한 주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는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순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말씀의 씨앗을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거룩은 악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사다이 왕이 맨소울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아블루스가 어떻게 도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까. 마치 그들의 편인 것처럼,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유혹했습니다.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 편인 것처럼 접근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어떻게 접근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편인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편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인간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 들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세상을 악하게 만들 수 없으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악하고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사단에게 협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사단이 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단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협력자가 되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사단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싸우고 계십니다. 악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까짓 사단을 다 쓸어버리시지 하나님은 왜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도 쓸려 가기 때문입니다.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한 순간에 무저갱으로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거기에 물들어 있는 모든 영혼들도 한꺼번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에 종노릇하고 사단의 협력자가 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그것

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데 왜 추수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둬니까.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들이 상할까봐 추수 때까지 두는 것입니다.

존 번연의 〈거룩한 전쟁〉에서 맨소울이라는 도시를 두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자유의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아블루스여, 맨소울의 가련한 주민들은 너의 통치와 정권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다. 만일 네게 굴복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안다. 전에 네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뱀을 보지 못해 사냥꾼에게 잡힌 새와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섰고, 악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섰다. 많은 것을 잃었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도, 무기를 내려놓지도, 너와 같이 끔찍한 폭군에게 항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항복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 뿐만 아니라 왕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너와 맞서 싸우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디아블루스에 빼앗기고 뒤통에 빠져 버린 맨소울처럼 되지 않도록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도 자유의지의 말처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절대 항복하지 않고 계속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증스러운 것을 혐오하고 미워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악(evil)’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산다(live)’라는 단어를 거꾸로 해놓은 것입니다. 악이란 삶을 거스르는 것이고, 악을 거슬러야 진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증스러운 것을 혐오하고 미워하라”는 것은 선한 하나님이 내리신 선한 명령입니다. 사람을 혐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

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흠여 버리는 사람이다”(마 12:30).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악에 속해 살든지 아니면 악을 미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와 꿰매 때가 있습니다”(3:7).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찢으신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찢으시는 것입니다. 아 고향도 가정을 떠나 찢겨졌지만 그로 인해 벵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신 것은 열방으로부터 찢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찢으신 것은 그로 인해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꿰매 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거룩이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찢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철저히 찢어져야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을 철저히 미워하는 찢어짐이 있어야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철저히 찢으신 것은 온 세상의 복의 통로로 꿰매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은 철저히 찢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꿰매는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미워하시는 까닭은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회복 불능상태로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싸구려 책에 잉크가 떨어지고 물에 빠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보급 고문서에 잉크가 떨어져 못쓰게 되고, 물에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을 귀하게 보면 볼수록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을 무가치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악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악에 속한 이들을 멸망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악에 대항하여 싸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영적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통일칼럼

그곳이 꿈엔들 잊힐리아

근 10년 전 만주의 고구려 유적과 백두산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다. 항공기를 타고 중국 심양 요녕을 거쳐 드문드문 압록강을 접하며 연길과 용정까지 가서 백두산을 오르고 다시 심양을 통해 돌아오는 7박8일 일정이었다. 이를 밤을 버스에서 자는 빡빡한 행군이었다. 몸은 무척 피곤하였지만 만주 벌판에 흠여져 있는 고대 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문화유산은 실로 놀라웠다. 해방 10여 년, 1950년대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구명투성이 국사 지식에 갇혀 있던 나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었다. 요하문화가 대륙문화의 기원이라고 믿고 있던 황하문화보다 1,000년이나 앞섰고, 고조선, 부여의 문화가 요하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는 역사의 틀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어디 그 뿐이라. 요녕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 여신상의 손이 곰의 발 모양을 한 것을 보았을 때 교과서 몇 줄로 배운 우리 고대사에 대한 궁금증이 단번에 해소되는 것 같았다. 역

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던가? 올바른 우리 역사의 정립은 한반도 분단이 해소되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생각되었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가정의 믿음의 고향을 회복하는 일이다. 1936년 연세 세브란스를 갓 졸업한 아버지는 고향 땅 수원을 떠나 무의촌 개업을 자임하고 함경도 신창에서 동지를 틀었다. 북녘생활 10여 년 동안 함흥을 거쳐 정평에 자리를 잡은 가정에서 나는 막둥이로 태어났다. 서너 살이나 되었을까. 정평의 장로교회 예배당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 드리는 40대 아낙네 어머니의 가슴을 파고들다 야단맞던 기억이 나에게는 교회에 관한 첫 번째 추억이다. 1947년,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 38선을 넘어 이남 땅 고향으로 떠나겠다는 젊은 의사를 장모로 세우고 “어디를 가나 죽도록 충성하라”고 당부한 믿음의 선배를 아버지는 평생 마음에 품고 사셨다. 우리 가족은 이삿짐을 싸

놓고 마지막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갈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고 찬송을 불렀다.

신의주가 고향인 처가의 이야기도 비슷하다. 일가친척 대부분을 북한 땅에 남겨둔 채 돌아 갓 지낸 집사람 하나만 데리고 월남한 처가는 외할아버지가 목사였으니 믿음의 역사로 따지면 100년이 훨씬 넘는 집안이다. 잠깐 떨어져 있으면 될 줄 알았던 남행길이 마지막 이별이 된 처가 부모님은 함께 넘어 온 고향친지들과 교회를 세워 평생 섬기며 그리움을 달래셨다.

내가 기억하는 북한은 풍요의 땅이었다. 지금은 식량부족으로 굶어 죽는 동포가 많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1940년대 함경도는 해산물 이 넘쳐나 정어리, 명태, 가자미가 지천에 널려 있는 고장이었다. 올해 85세이신 형님은 아직도 명품 털게로 배를 채우던 이야기를 즐겨하신다.

아버지는 고향인 수원으로 돌아 온 후에도 함경도 이웃들의 훈훈한 정을 못 잊어 매년 서울 인근에서 열리는 정평군민 야유회에 참석하곤 하였다. 어린 기억에 운동장 가득 채운 신향민들의 얼굴은 밝기만 하였다. 아마도 남한에서의 삶은 임시이고, 조만간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으리라. 분단 어언 70년, 마지막 정평군민 야유회가 열린지 벌써 50여 년이 넘었다. 전쟁 통에 남하 해 그동안 간혹 왕래가 있던 이웃들도 이제는 모두 돌아 가셨는지 소식이 끊어진 지 10년이 넘었다. 우리는 영원히 다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이용경 장로
(CGNTV 대표)